



가을 바람 가른 은륜 행렬

광주일보 주최로 21일 광주상무시민공원일대에서 열린 '2012 Green 자전거축제'의 은륜 행렬이 가을 도심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 관련기사 14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갈길 먼 광주 김치산업

대부분 영세업체 경쟁력 허약 생산량 전국 1% 수출 연간 2t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 김치산업이 분궤도에 오르려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지역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생산량이 전국 총생산량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맛의 균일화와 상품의 차별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김치 제조 및 유통·마케팅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와 지역김치제조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지역 김치 제조가공업체(공장형)는 모두 12곳으로 전국 827곳 가운데 1.5%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이 19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95곳, 서울 73곳, 충북과 전북 64곳, 경기 55

곳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5곳에 이어 두 번째로 적어 '김치 종가'로서의 명성이 무색했다.

광주김치 생산실적도 지난 2009년 2947t(판매액 64억원)에서 2010년 3215t(76억원), 2011년 4258t(103억원)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1년 현재 전국 김치생산량 43만t(9000억원)과 비교하면 1.1%의 점유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광주김치 세계화의 바로미터인 수출실적 역시 2009년 3t(판매액 12억원), 2010년 14t(70억원), 2011년 2t(14억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김치산업이 이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일 생산능력이 2미만인 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김

치산업업체의 영세성때문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전체 업체의 70% 이상이 자본규모 2억원 미만이며 저체계적인 생산공정 관리는 물론 다양하고 세련된 포장재 개발이나 상품의 차별화, 표준 제조기법 개발, 맛의 균일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홍보마케팅 없이 단체 급식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국내산 김치의 30%수준인 중국산 저가김치의 공세로 판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광주김치의 전국화·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김치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김치 원부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배추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김치부재료 및 목은지 저온저장고시설을 공급하며, 다양한 김치제품과 포장재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김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목은김치를 비롯한 맛·충청 특화김치를 산업화하며,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와 해외박람회 참가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연계해 김치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김치산업이 아직까지는 영세한 실정이지만 서서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김치 제조와 유통·마케팅,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초박빙 중반전 밀리면 죽는다

朴-文-安 대선 주도권 다툼 치열

18대 대통령 선거가 중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승부수를 잇달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3자의 초박빙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중반전에서 밀린다면 대권의 꿈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사진은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주문한 뒤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쟁 도구로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에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주문과 함께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는 야권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양수검정'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정수장학회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오려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친

노 핵심 그룹의 '백의 종군'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내세웠다.

문 후보 선대위의 전철철 기획본부 부본부장, 이호철 후원회 운영위원, 양정철 메시지 팀장 등 '3철' 등 친노 핵심 인사 9명은 이날 일괄 퇴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밀거름이 되겠다"는 총정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고집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 후보 캠프에 요구했던 친노 핵심 그룹의 2선 퇴진 문제는 일단 해결된 양상이지만 지도부 퇴진 등을 포함한 당내 해산책 제시라는 속제가 남아 있는 형국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안주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연 오찬 간담회에서 대선 안주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가야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약에 국민이 원해 단일화 과정이 생긴다면 거기서도 이겨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아니면, 아닌대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 후보의 발언은 '대선 안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정치 쇄신이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경우,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4인가족 기준 김장비용 비교해보니

전통시장 21만7050원... 대형마트 32만818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김장비용이 많게는 15만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8면>
광주일보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지역의 대표적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곳, 전통시장 1곳의 김장물가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4인가구 기준 김장비용은 21만7050원, 대형마트 32만818원, SSM 32만54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만3768원(47.8%), SSM보다 10만8423원(49.9%) 저렴한 것이다.

대형마트 간 가격차도 확인됐다.

SSM 32만5473원

최고 15만원 차이

가장 비싼 곳은 롯데마트로 36만510원이었고, 다음으로 이마트 31만1870원, 홈플러스 29만75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김장철을 한 달 앞두고 실시한 것으로, 최근 김장재료 값이 급등세인데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김장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역 김장관련 소매가격(양동시장 기준, 상품)은 배추 1포기 값이 4000원으로 1년 전 2500원보다 60% 올랐다. 대파(1kg) 가격은 3400원, 생강(1kg) 8000원, 무(1개) 25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26%, 63.2%, 23.7% 뛰었다.

특히 여름철 고온·가뭄·태풍 등의 영향으로 국산 배추 재고량이 줄고 가을배추 재배면적까지 감소한데다, 마늘·고추·생강 등 수입 농산물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김장물가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국 유엔 안보리 15년만에 재진출

우리나라가 유엔의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15년 만에 다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19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유호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2013~2014년 임기의 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의 배출과 잇단 국제회의의 유치 등을 질시하는 경제심리와 약소국에 대한 동정표 등을 극복하고 15년 만에 다시 안보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중견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범·사대 교육대학교

제38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2012. 10. 27(토) 09:00
○장소: 모교 운동장(봉향대)
○전화: 062-520-4555

광주시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손정선

조선대학교 20만 동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2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일시: 2012. 10. 25(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조선대 서석홀 (구, 중앙도서관 옆)
○주요인원: 임원선출 및 회장 이·취임식
○문의: 사무처 228-0197-8, 225-3293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홍수

www.tphtoyot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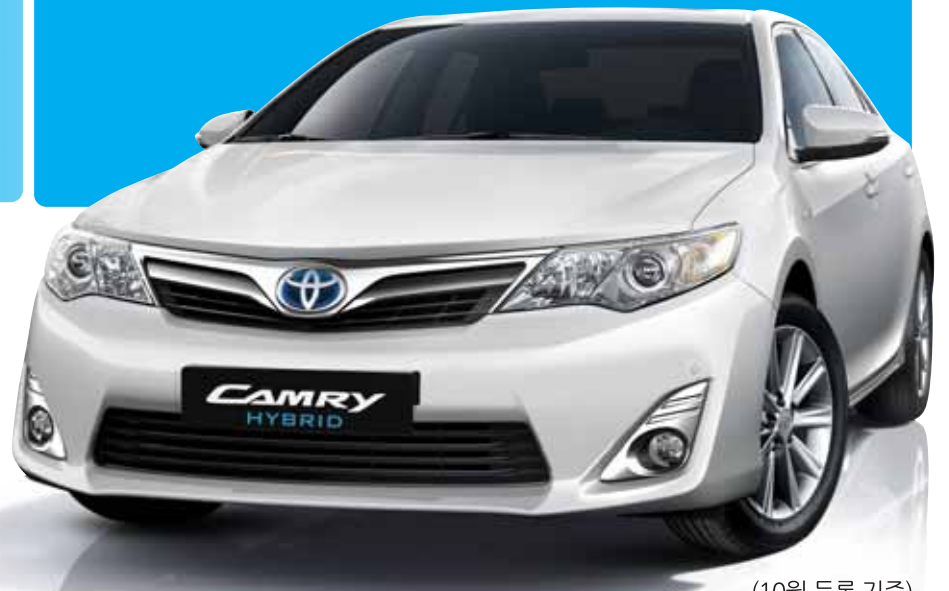
비교할수록 < > 토요타

연비 좋은 차에
파워를 기대하면 안 된다?

연비도, 파워도 모두 놓치지 않았다



캠리 하이브리드, 동급 최고 연비 23.6km/ℓ · 3,000cc 이상의 파워



(10월 등록 기준)

차가 커지면 연비는 떨어진다? 연비와 파워가 동시에 좋을 수는 없다? 캠리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세단에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만나 더욱 강력한 캠리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세단 역시 비교할수록 캠리입니다.



TOYOTA
Smile for Tomorrow

[토요타 브랜드 런칭 3주년 기념] 고객 감사 특별프로모션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CAMRY/CAMRY HV/PRIUS)

토요타 광주 062-371-8383 지하철 운전역 3번 출구앞